

JISAN GROUP

地山人

지산가족의 화합과 소통의 기록들

걸림돌을
디딤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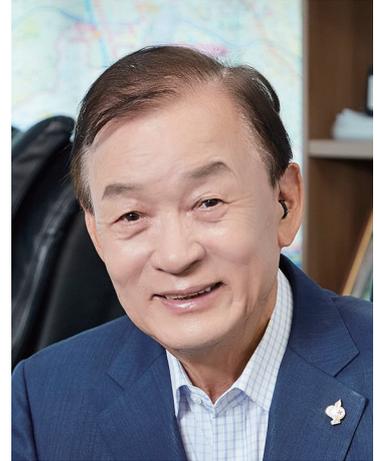
안성창고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산22-4 외

보관범위		상온 물류센터
개요	총 면적	12만평
	층별 면적	1.2만평 ~ 2.4만평
	구조	지하 1층, 지상 3층
	도크수	350
	기둥간격	16.5m
	층고	8.2m ~ 9.6m

- 국내 최대 상온 물류센터
 - 전층 직접 접안 구조
 - 1만 5천평 이상의 층별 면적
 - 높은 층고
 - 넓은 기둥 간격
 - 최고의 접근성(안성IC · 서안성IC · 남안성IC)
- 5분 이내 대기업 택배사업소

문의 차장 최승영 010-5800-1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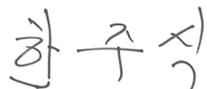
인생은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행로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겪으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걸림돌을 만나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를 피해서 돌아가는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겠으며,
또, 뒤에 오는 후행자를 위해
한 걸음으로 치우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산인 만큼은, 그 돌을 디딤돌 삼아
한 단계 윗길인 추월차선으로 갔으면 합니다.

우리 그룹의 사훈 '걸림돌을 디딤돌로'는
고난과 역경을 피하거나 버티자는 의미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성공의 기회로 역이용하는
역발상의 현명함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지산인 여러분!
닥치는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 고집스레 버티지만 마십시오.
택견의 수양 원리처럼 걸림돌을 역이용해
바람이나 물과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성공의 추월차선으로 전환하는
또다른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지산그룹 회장)

한주식 회장님



걸림돌을 디딤돌로

...



한주식 회장은 지난 1947년 2월 20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의 작은 마을에서 5형제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지런하고 신문물에 강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성격을 물려받아 총명하고 영특한 시골의 수재로 자랐으나, 중학교 1학년 무렵, 장티푸스를 앓게 된 이후 청각을 거의 상실하게 되는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다. 넘쳐나는 각종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여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청각손실은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남들만큼만 알기 위해서도 그는 남들의 몇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그는 남들만큼만 아는 정도를 넘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러한 노력이 학급 석차나 생활방식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그는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아예 교과서와 학습내용을 외워버렸다. 누가 일부를 물었을 때 전체를 답함으로써 정답이 늘 포함되게 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를 순수한 자신의 노력으로 '디딤돌'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일찍부터 발휘된 사업수완

한주식 회장의 특이한 행보는 그 후로도 계속된다.

서울대 수의학과에 합격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청각장애를 이유로 탈락(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부당한 상황이지만, 당시의 세태에서 이런 차별은 제법 흔한 일이었다)하고, 건국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첫 번째 등록금 납부를 미뤄(석달간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 자금으로 학원과 독서실 사업을 벌여 등록금을 마련하고도 많은 돈을 버는 재주를 부린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재학기간 중에 이미 사업으로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이후 한주식 회장은 나날이 보급이 확대되는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 새로운 아이템을 성공시킨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재미삼아 부동산 상담을 해주던 것이, 본격적인 사업 아이템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그의 남다른 직관력과 창의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즉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법규의 표면적인 규제에 얽매어 혼선을 빚고 있을 때, 법규를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주었고, 또 이러한 해법이 대부분 제대로 적용되어 투자자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 박사, 교수들이 법규 그 자체에 묶여서 꼼짝달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한주식 회장은 문구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 새로운

대한민국 최고의 형질변경 전문가로...

해법을 제시하여 이를 관철해 나가는 모습에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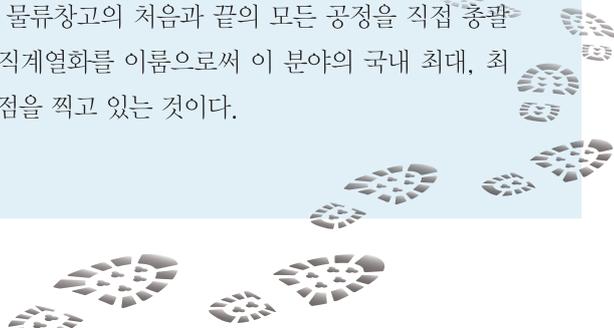
이렇게 해서 그는 부동산 분야의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 전문변호사 보다 먼저 모셔가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최고 권위의 전문가가 되었다. 관련 학문을 전공한 것도, 관련 학위도 없으며, 법을 연구하지도 않았으면서, 부동산을 연구하고 전공하여 관련 박사학위를 딴 사람과 관련 법을 연구하고 학습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보다 더 부동산을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된 것이다.

형질변경과 수직계열화

이때까지 그는 법조계나 재계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컨설턴트의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1991년경 이후 본격적인 자신의 사업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자신의 독창적인 방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부동산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벌여 성공적인 기업세계에 안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버려지거나 쓸모없다고 판단되어 싼값에 거래되는 토지를 사들여 형질변경과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가치있는 토지로 변화시키고, 그 토지에 건물을 짓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물류창고 사업을 확장해 갔다. 또한 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 PC(precast concrete)공장을 건립함으로써 토지매입과, 설계, 건설, 운영 등 물류창고의 처음과 끝의 모든 공정을 직접 총괄하는 수직계열화를 이룸으로써 이 분야의 국내 최대,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축적한 부의 사회환원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열매

1억이상

고액기부자클럽

가족전원 가입

그러나 한주식 회장의 인생 전반에 걸쳐 부를 축적하는 과정밖에 없었다면, 그는 그저 특출난 기업인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의 비상한 능력과 노력으로 이뤄낸 부를 자신과 가족의 재력을 축적하는데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과 함께 나누는 점에서 그 어떤 기업인이거나 재력가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

평소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확산되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주식 회장은 후리소매로 버는 막대한 돈을 후원과 기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그의 노력은 비단 금전적인 후원과 기부를 넘어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벌이는 수준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고액기부자모임인 '레드크로스아너클럽'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자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족 전원이 가입할 정도로 그의 기부 활동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으며, 이러한 기부와 자선은 물사람들의 감동과 공감을 일으켜 주변으로부터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한 경영방식

한주식 회장의 업무일과는 여타 기업의 총수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내방객들을 접견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많은 직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는 일정으로 채워진다. 그가 경영하는 지사그룹은 여타의 회사들과 달리 말단 신입사원이라 할 지라도 자신의 업무보고를 한주식 회장에게 직접 해야 하

기 때문이다.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보고와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그는 회사 전반의 모든 업무에 대해 이미 꿰뚫어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사에서 업무로 주중을 보낸 한주식 회장은 토요일에는 공사현장들과 물류센타를 방문하여 업무상황을 파악하고 현지지도를 시행한다. 공사현장들과 물류센타는 토, 일요일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까지 업무를 연장한 것이다.

이쯤 되면 워커홀릭(workaholic : 일 중독자)이라고도 할법하지만,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성취하는 기쁨 속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기에 일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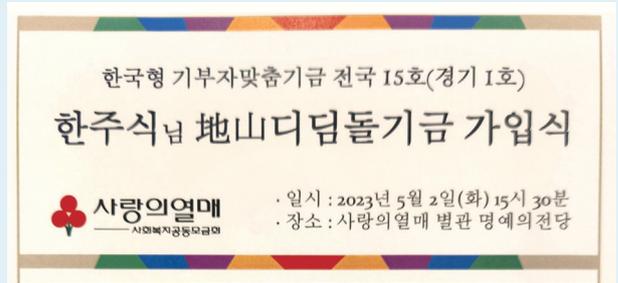
베푸는 즐거움을 느낄줄 아는..

한주식 회장의 여러 즐거움 중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아마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닐까 한다. 술한 기업인들 중에 이토록 베풀고 나누는 것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경영인이 있을까? 저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대외적인 기부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자선과 기부를 대의 홍보나 절세(節稅)의 일환으로 수단화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그만이 자선과 기부 그 자체를 즐기는 분인 것 같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직원들의 건의를 요구하며, 건의를 통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대부분 이루어 준다. 그 건의 자체는 '뭔가를 사달라'라는 사소한 요구가 대부분으로 어찌보면, 집안의 가장에게 자식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축구경기 등 야간에 행사가 있을 때, 비나 눈이 내려 싱숭생숭할 때, 유난이 날씨가 좋을 때 등 모든 이유가 핑계가 되어 통답이나 피자 등 가족과 주점부리할 간식을 갑작스레 직원들에게 내려주기도 한다.

우리 모두가 여유롭게 사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함께 하는 세상을 위해

이렇듯 한주식 회장의 회사운영과 사회활동, 기부와 봉사 등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활동이 타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자 살아야만 하는 세상은 그가 배격하는 세상이다.

모든 직원은 가족과 같이, 모든 주민들을 직원과 같이, 가족, 직원, 주민들 모두가 우리, 니네 가리지 않고 더불어 함께 우리가 되어 여유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변함없이 정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사물류터미널



안성창고

H I S T O R Y

지산그룹 설립

1999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남이천창고 설립(창고업)

2012

(주)지산 설립
지산 건설업 등록

2015

(주)지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주)남사물류터미널 부동산개발업 등록
지천PC 설립
(콘크리트 제조업, 연면적 4,388평)
(주)일죽창고 설립(창고업)

2017

2010

지산엔지니어링 설립
(엔지니어, 인허가 등)
측량업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개소
한국건설관리협회 등록
(주)지산종합건축사 사무소 설립
(건축설계 등)

2014

(주)이천창고 설립(창고업)

2016

(주)용인물류터미널 설립(창고업)
(주)남사물류터미널 설립
(창고업, 연면적 75,804평)
(주)지산 부동산 개발업 등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지산산업 설립(창고업)



지산PC공장



지산그룹

JISAN GROUP

회 장 한 주 식
 본사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64번길 18 (지산빌딩 4,6층)
 사업분야 인허가, 토목 및 건축설계, 시행, 시공, 운영, 관리, PC제조 등
 사 원 수 600여명
 연 매 출 5,000억원

PC관련 특허 7종 등록 및 14건 출원

(주)남사물류터미널 준공
 (주)지산개발 PC공장 준공
 (콘크리트 제조업, 연면적 10,000평)

2020

송악냉동창고 준공
 (창고업, 연면적 23,516평)
 안성창고 A동 착공

2022

2019

(주)지산개발 설립
 (건축공사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일죽창고, 지산산업
 상표등록
 (건축설계, 창고업,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36건)
 충청북도 투자정책 자문관 위촉
 지산그룹 상표등록
 단열물류창고용 PC바닥 판재 및 제작하는 방법 특허출원

2021

(주)지산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제2021110496호)
 (주)지산개발 기계설비공사업
 (용인2021-10-05)
 (주)지산개발 전문설계업(전력시설물)등록
 (용인1-25)
 (주)지산개발 소방시설업 등록
 (2021-01-00048)

2023

안성창고 B동 착공

발행처
지산그룹

발행인
한주식

편집인
손영준

편집
지산그룹 사보편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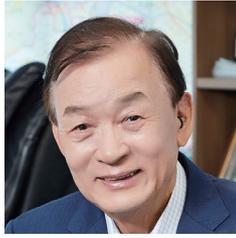
디자인
(주)디자인티키

발행일
2023. 06. 01

전화번호
031-280-6091

E-mail
young@jisaneng.co.kr

〈비매품〉



04

발행인 소개	04
지산 연혁	08
지산그룹의 사훈	12
지산그룹의 방향과 목표	13
사업성과	14



20

특별인터뷰	한주식 회장님	20
에피소드①	회장님의 선물	26
본사소개	기획부, 경리부, 자재부, 개발부, 건축부	27
인터뷰①	김대집 대표	30
포인트	사장님 몸에 GPS달기	32



33

창고소개	이천창고	33
	일죽창고	33
	남시물류터미널	34
	안성창고	36
지산그룹의 물류창고	38	



40

지산그룹 물류창고만의 특별 서비스	40	
PC공장 소개	42	
인터뷰③	김주찬 대표	44
지산사용설명서	46	
한주식 회장님 어록	48	



50

언론보도	50
기타활동	50
지산그룹 수상내역	51
지산그룹의 자선활동	52



54

지산그룹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하는 자세	54
에피소드②	55
지산인 퀴즈	56
운동과 건강, 지산그룹의 지상명령	58



걸림돌을 디딤돌로



걸림돌 진행 방향을 가로막아 행보를 더디게 하는 장애물
디딤돌 목적인 곳에 다다르기 위해 딛고 오를 수 있게 만든 도움 돌

연속된 역경과 고난의 인생사에서 닦친 어려움과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겨 딛고 일어난
 한주식 회장의 인생철학을 반영한 사훈



Meaning

- 1 걸림돌을 깬고 다듬어서 디딤돌로 만들자는 의미로, 제기되는 방해물을 자신의 방향과 목적에 맞게 조정하고 다듬자는 적극성
- 2 닦친 장애물을 장애물이라 여기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딛고 설 디딤돌이라고 여기자는 긍정성
- 3 제기되는 걸림돌을 사전에 인식하고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는 준비성
- 4 걸림돌에 대한 폭넓은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디딤돌로 만드는 창의성
- 5 눈앞에 닦친 걸림돌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디딤돌로 만드는 순발력

▶ 지산그룹의 사업방향

**후리소매(厚利小賣)를 던지고,
후리중매(厚利中賣)를 넘어
후리다매(厚利多賣)를 이루자.**

적게 팔더라도 많은 이익을 남기며,
나아가 많이 팔고 많은 이익을 남기재
후리(厚利)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싼 값에도
살 수 있는 구매자가 있어야 하며,
구매자가 있어도 구매 의욕이 생기는 상품을 팔아야 하고,
이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기발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기발한 아이템은 고정적 사고방식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
고정관념과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각,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과감히 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능하며,
이때 비로소 찾아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찾아와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 지산그룹의 사업목표

모든 이윤의 사회 환원

**이러한 사회 환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지산그룹은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창업자 한주식 회장은 모든 직원과 나아가
지역주민들까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산그룹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01

물류창고 운영 및 건설

용인 남사물류터미널

구분	내용		
사업명	용인 남사물류터미널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 1027 (완장리 73-5)		
현황	저온창고 5개층		
토지	30,961평	연면적	75,804평

이천 호법물류단지

구분	내용		
사업명	이천 호법물류단지		
소재지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69-11		
현황	상온 운영중		
토지	38,000평	연면적	15,100평

안성 남이천창고

구분	내용		
사업명	안성 남이천창고		
소재지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85-3		
현황	상온 운영중		
토지	5,7000평	연면적	1,900평



당진 송악물류센터

구분	내용		
사업명	당진 송악물류센터		
소재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83-6		
현황	저온 운영중		
토지	20,209평	연면적	23,516평



안성 안성창고

구분	내용		
사업명	안성 안성창고		
소재지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		
현황	A동 완공, B동 건축 공사중		
토지	91,699평	연면적	114,143평





02

물류창고 운영

안성
일죽물류센터

구분	내용		
사업명	안성 일죽물류센터		
소재지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현황	저온, 상온 운영중		
토지	30,500평	연면적	36,500평

서이천 물류단지

구분	내용		
사업명	서이천물류단지		
소재지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62-4		
현황	저운, 상운 운영중		
토지	32,000평	연면적	28,900평



여주 대신물류센터

구분	내용		
사업명	여주 대신물류센터		
소재지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685		
현황	상운 운영중		
토지	35,400평	연면적	16,017평



03

공장 신축



진천 금암 PC 1공장

구분	내용		
사업명	진천 금암 PC 1공장		
소재지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산53-1		
현황	운영중		
토지	9,846평	연면적	4,388평



진천 문백 PC 2공장

구분	내용		
사업명	진천 문백 PC 2공장		
소재지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290		
현황	운영중		
토지	93,846평	연면적	10,000평

04

물류창고 진행중

화성 장안물류단지

구분	내용
소재지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77-1
토지	99,500평

음성 감곡원당산업단지

구분	내용
소재지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산15

이천 마장물류단지

구분	내용
소재지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 57
토지	16,000평
연면적	3,800평

안성 죽산물류단지

구분	내용
소재지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193-1
토지	36,890평
연면적	44,651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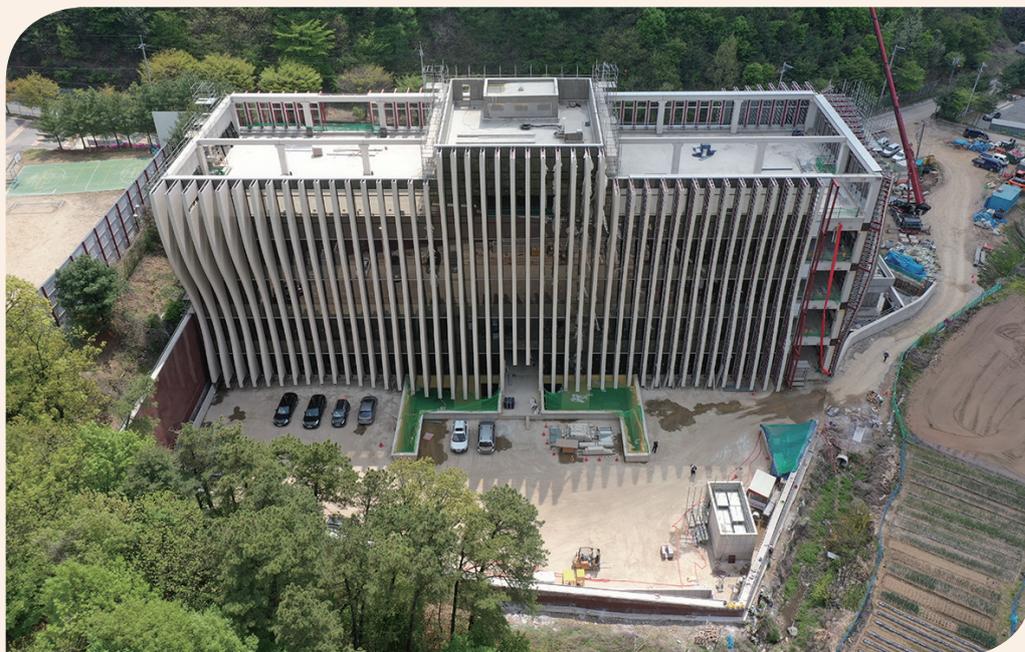
용인 물류터널

구분	내용
소재지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602
토지	60,500평
연면적	170,000평(변경중)



05

기타사업

용인 히스토리움
가족기념관

구분	내용	
사업명	용인 히스토리움 가족기념관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58-4	
규모	봉안당 20실(19,000여기)	
토지	2,544평	연면적 4,479평

한주식
회장님
Interview



무일푼
청년 실업가에서
형질 변경 전문가로,
3조원대
중견사업가로
성장한
경제신화의
주인공



특이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8월의 여름날 장티푸스를 앓고 난 이후 청각의 많은 부분을 상실했습니다. 이때 앓은 장티푸스로 인해 삶의 방향과 생활방식 등 인생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생겼죠. 당시 저는 아마도 병에 걸려 가사상태에 빠졌으나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기운없이 축 늘어져 아무런 의식이 없어 보였고, 이로 인해 돌팔이 의사는 제게 사망선고를 내려 버렸죠. 요즘 들어 저 자신을 일컬어 돌팔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당시 돌팔이 의사는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오락가락했으니, 살인 행위와 다름없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의사의 사망선고로 인해 우리 가족은 정식장례도 없이 산에 매장하기 위해 제 몸을 지게에 싣고 산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때 마침 내린 비로 인해 몇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비로 인해 저를 매장하지 못하는 일이, 다음날과 그 다음날까지 이어져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역시 산에 오르려다 제가 ‘배고파’하며 깨어난 겁니다.

예수도 아닌데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난 일이 흔치도 않은 일인지라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이 놀라고 기뻐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점은 제가 가사상태라고,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한 많은 기간 동안 저는 사실 의식이 있었습니다. 몸만 까딱할 수 없었고,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또렷한 의식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왜 저를 보고 우는지,

왜 저를 죽은 사람처럼 대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산에 묻자고 할 때는 산채로 묻힐까 겁이 나서 ‘나 안죽었소’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임사아닌 임사체험으로 인해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로 인해 자신만을 위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음을 일찍부터 깨우쳤다고 할까요? 또한 병으로 잃게 된 청각은 생활태도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요즘처럼 보청기가 흔한게 아니라 그나마 사정을 개선해볼 수도 없었으니, 사실상 청각을 모두 잃은 것과 다름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의 정보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처지에서 결국 모든 것을 암기하여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으로 생활방식을 바꿨습니다. 또한 주의력과 직관력을 키워 상황을 유추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제 인생의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불과 십수 년 만에 자산규모 3조원이 넘는 사업체를 일구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립하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것은 대학교 첫 등록금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 등록금 납입을 3개월 유예시키고, 이를 씨앗돈으로 삼아 독서실과 학원을 차려 제법 돈을 모아나갔습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그 시절 경제성장기에 독서실과 학원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간파한 덕분입니다.

또 이후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한 인터넷 PC통신을 활용하여 부동산 컨설팅을 시작했고, 또 운이 좋았던지, 제가 컨설팅한 사람과 업체가 부동산에 큰 성공들을 거두자 많은 입소문이 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방면에서 전 비교적 유명한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분야에 나름대로의 생각과 노하우로 임하다 보니 오늘날 이렇게 되었네요.

● 평소 돌팔이를 자처하시는데 그 이유는?

● 돌팔이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비전문가입니다.

단어 그대로라면 전 반은 돌팔이가 맞습니다. 제가 부동산 분야에 대해 학력도 학위도 그 흔한 중개사자격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깐요. 처음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넣은 곳은 수의학과이며(1차 합격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를 이유로 2차 면접에서 탈락), 두 번째 후기로 들어간 학교는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입니다. 둘 다 부동산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학문입니다.

결국, 부동산에 관한 공부는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채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변칙적인 처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학위를 받은 부동산전문가들보다 성과가 좋다 보니, 남들이 변호사나 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알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자칭 돌팔이를 칭하고 있는 겁니다.

● 평소 직원들에게 회장님 개인의 사업경영 노하우를 강의를 통해 전수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저는 직원들이 저와 같은 마인드로 일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저의 업무처리



방식을 강제로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직원들에게 제 생각을 들려주게 됩니다. 물론 일방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직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가지 측면에 치우쳐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정도(正道)로 인식한다면 더욱더 매몰되어 일을 그르치거나 더 좋은 해결책을 놓친 채 작은 성과에 만족하게 되죠.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너무도 많습니다.

남들이 이미 많이 드나들어 확장된 길에는 볼꺼리도, 거저 주을 아이템도 없는 법입니다. 카트를 타고 다니며 치는 골프장에서는 남이 잃어버린 골프공을 주을 일이 없으나, 남들 가지 않는 길을 걷다 보면 많은 골프공을 거저 주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제 이 길을 갔었다면, 오늘은 저 길도 가보고, 내일은 또 다른 길도 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경륜이 늘며 새로운 안목이 트여지는 법이니, 잃을 것 보다는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직원들에게 누차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며, 이를 통해 저와 직원들의 인식이 비슷해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같이 조회를 통해 얘기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 형질변경분야

전문가를 뛰어넘는

자칭

‘돌팔이 전문가’



직원들에게 건의사항을 강요(?)하다시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위 답변과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직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되지 않으려면, 자유스럽게 직원들의 의견을 묻고, 또 그 의견에 대한 토론을 거쳐 내용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이견(異見)도, 의견(意見)도 없이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제 말이 그른지 옳은지에 대한 판단 없이 저의 지위에 의해 무조건 수용하게 될 텐데, 이는 회사는 물론 개인들의 발전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의견에 토를 달거나 이견을 내세워 제 말이 틀렸음을 증명한다면 큰 상을 줄 것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또 틀린 의견이라도 제시하는 직원은 주체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이 역시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활발한 의견제시나 희망이나 요구까지 건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지체없이 제시할 것을 바라는 겁니다.



자산그룹은 외부의 자선단체나 불우한 이웃에게
자선과 기부를 많이 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현금이나 생필품 먹거리 등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토록 베푸는 삶을 살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모든 물질의 소비와 마찬가지로 재산 역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액수의 금액을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이 얻게될 때의 기쁨과 큰 부자가 얻게 되는 기쁨의 효용성을 따져본다면 그 금액의 가치는 가난한 자에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되며, 또 가장 효율적이며 효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물질과 부는 가장 효용가치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이 그 물질의 쓰임새가 가장 크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제 돈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어찌 바람직한 소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 역시 바람 막을 집과 가릴 옷, 배고픔을 달래줄 하루 세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것들을 채우고 남는 것의 달리 쓸 곳을 찾아야 한다면, 제 돈을 가장 가치있게 사용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자선과 기부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제게 작으나마 도움을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고맙고 좋습니다. 이러한 표정만으로도 제 자선의 보답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행동으로 남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무척 행복한 행운의 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일상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신욕을 하며,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명상에 잠깁니다. 이때 하는 명상은 맑은 정신과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후 6시경 같이 운동하는 멤버들과 함께 인근 호수공원에서 한 시간 정도 조깅을 하고, 인근 조식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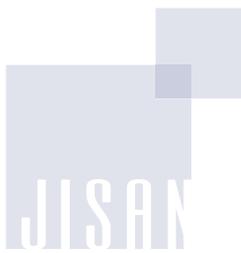
그 후의 회사일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시경 아침체조에 참여한 후 조회를 하고, 외부손님 접견과 결재로 이루어진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후 6시 30분경에는 퇴근을 합니다. 저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기에 보통의 퇴근 후 시간은 집에서 반신욕과 식사 등의 평범한 일상으로 구성됩니다.

토요일은 평일에 못 갔던 주요 공사현장과 공장 및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를 정리하고, 일요일은 지인들과 골프를 치며 휴식을 가지거나, 토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기부는 돈의 가치를 높이는
참다운 자본주의자의 행복.

주변의 행복을 통해
지상천국을 만들자는
소망을 반드시 이룰터...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 취미는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만, 조깅과 탁구, 그리고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의 경우 얼마 전 제 인생 첫 홀인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이에 따른 타수를 기록한 에이지슈트를 72세 이후 갱신하고 있으니, 골프실력이 상당하다는 뜻이겠죠?(웃음)

이처럼 저는 운동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며 하니, 아마도 그 효과는 남들에 비해 배가되는 것 같고, 이로써 아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 야채와 콩류를 좋아합니다. 오랜 기간 건강에 좋은 식단을 구성해서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세포의 노화방지와 항산화 작용, 염증과 감염 방지 효과에 좋고, 콩으로 만든 많은 음식이 세계 슈퍼푸드로 불리우고 있으니 그만큼 우리 몸에 좋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도 건강한 신체를 통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첫걸음으로 야채와 식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하는 식사를 하길 바랍니다. ■



회장님의 선물



뭔가를 잔뜩 싸주시는 부모님 처럼...

나는 집이 일산에 있다. 그래서 회사 근처의 원룸을 얻어서 지내며,
회사로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 집에 들어가는 '주말 가장' 생활을 한다.
회사에 입사하고 두어 달쯤 지났을 때, 주말에 집에 가니 처가 물었다.
'오늘은 왜 빈손이야?'
생각해보니 지난 두어 달간 매주 뭔가를 집에 들고 들어갔던 것이다.
한 주는 고춧가루, 한 주는 배 한 상자, 한 주는 사과 한 상자, 또 한 주는 쇠고기 등
이렇게 매주 회사에서 주는 뭔가를 집에 들고 들어가니,
당연히 또 들고 들어오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심지어 학교기숙사 생활을 하던 큰딸은 엄마의 얘기를 전해 듣고,
'혹시 아빠가 사업 망하고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 곳에서
일하다 남는 부식거리를 가져오는거 아니냐?' 라는,
농담 같은 의구심을 들어낸 적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달리 유별나게 회사에서 주는 물품이 많다.
그것도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재고가 아닌, 순수하게 구매해서 지급하는 물품이다.

종류도 다양하다.

소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고춧가루, 쌀, 무, 마늘 같은 농산물.
사과, 배, 귤, 레드향 같은 청과류. 모자, 목도리, 장갑, 신발, 바지, 셔츠, 외투 같은 의복류.
와인, 맥주 같은 주류. 피자, 치킨 등의 간식류 등...

이렇듯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전반이 지산그룹 사원들에 대한 지급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사원복지 정도로 인식하게 된 이러한 지급품은
사실상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단체협약사항도 아니다.
회사가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순수한 선물인 것이다.

이는 한주식 회장님이 진정으로 직원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선물이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장님이 직원들 각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선물인 것이다.

본가나 처가에 갔을 때 바리바리 싸 주시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
가족과 행복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시는 마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하시는 마음.
이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같이 직원을 바라보는,
한주식 회장님의 부모님과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획부

사장실 직속부서로 자산그룹의 업무 및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다.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그룹경영과 업무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비서팀
회장님 보좌업무 수행



금융팀
대출 및 PF, 경매



인사팀
인사관리



총무팀
자산, 사옥 관리, 업무지원



홍보팀
그룹 이미지 홍보,
홍보물 제작관리



물류팀
창고 임대 및 수탁 영업



용지팀
사업용 토지 매입 및 관리



경리부

그룹내 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관리하고, 회계상의 기장업무를 수행한다.



회계팀
장부기장 등 회계관리



자금팀
수입, 지출 등의 자금관리



자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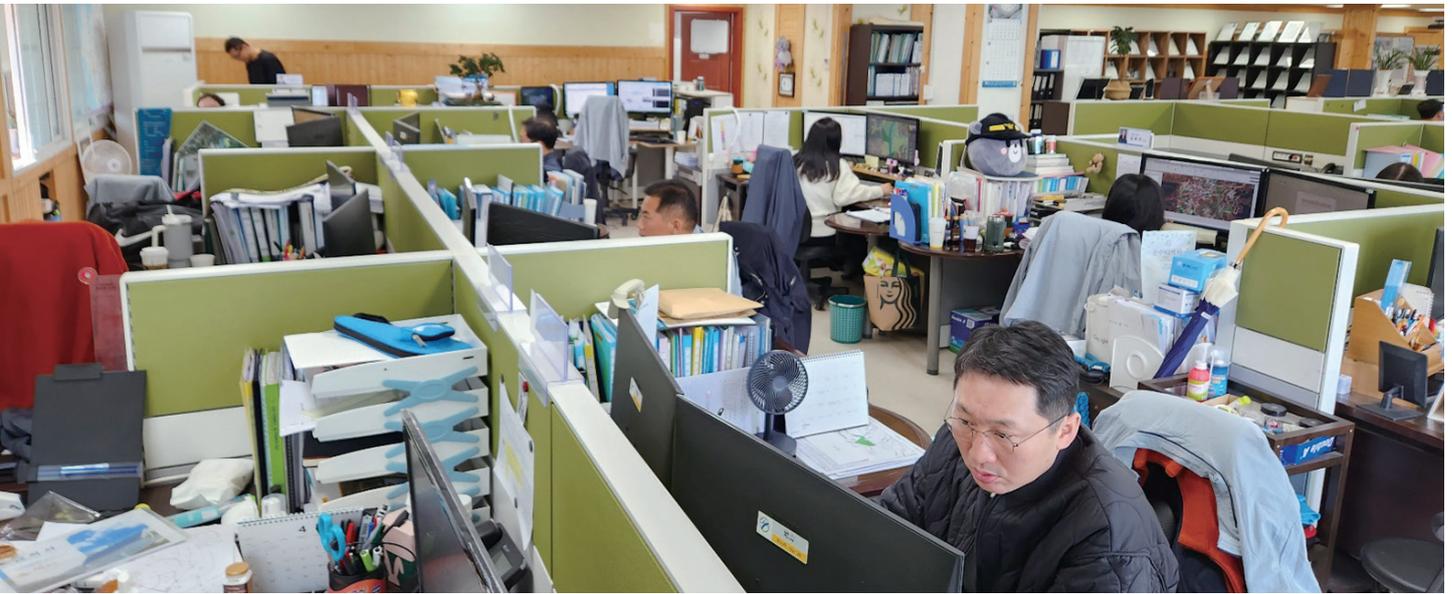
건설 자재 수급과 하청업체 관리,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등 그룹내 전반적인 원료 및 자재를 수급하는 구매부서다.



자재팀
공사 및 그룹내 필요 자재 및 물품 구매



공무팀
사 관련 대관업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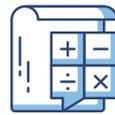


개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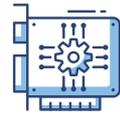
매입한 사업용 토지의 개발에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대관업무 및 토지의 측량과 설계, 조성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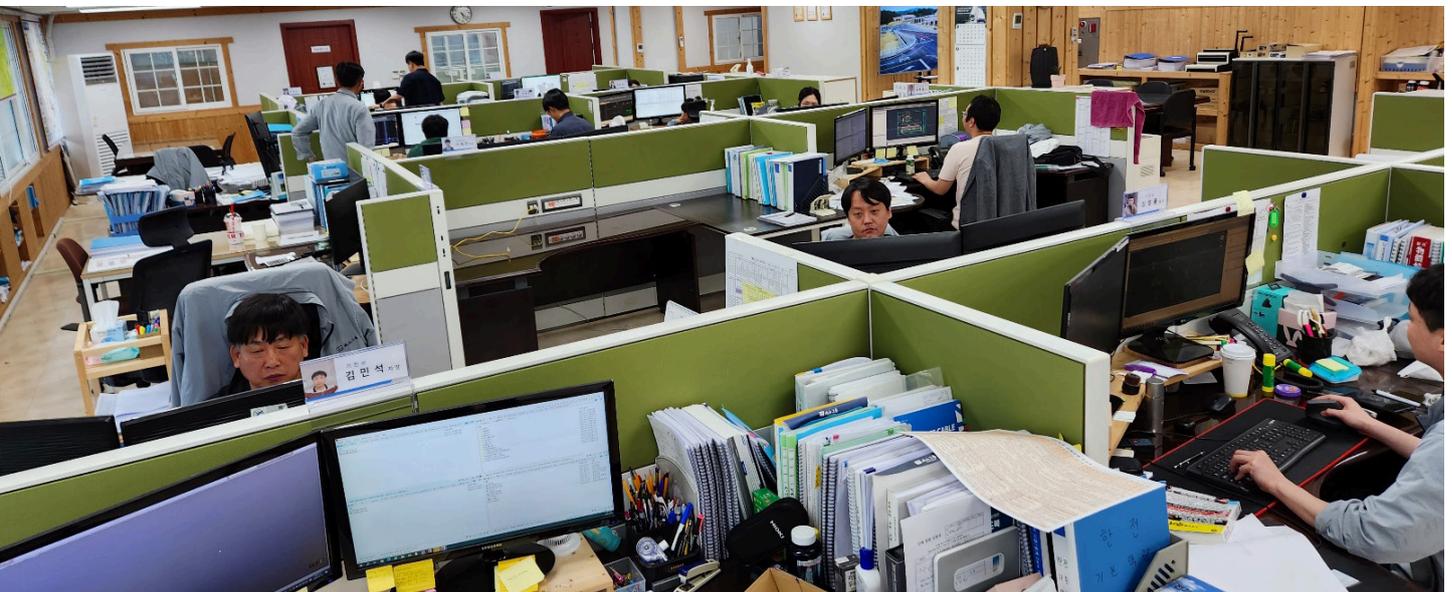
도시계획팀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토목설계팀
토지 측량 설계 업무



토목공사팀
토지 조성 업무



건축부

추진하는 사업의 건축설계와, 건축 등 각종 공사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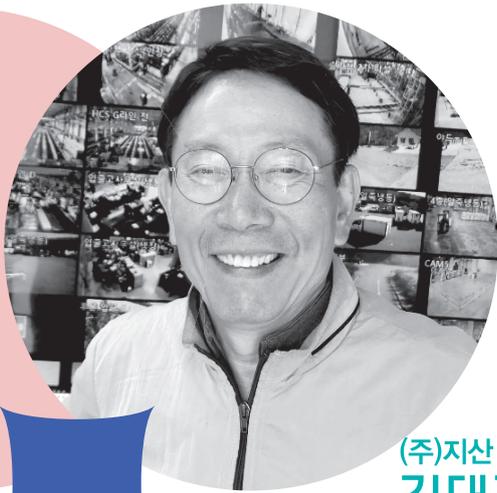
건축설계팀
창고 등 신축건물 설계



건축공사팀
창고 등 건물 신축 공사



기전공사팀
신축건물 내 신규 전기 공사 업무



(주)지산
김대집 대표

사장님의 하루와 주간 일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저의 하루는 오전 4시반 기상을 해서 5시반에 아침운동을 위해 집을 나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주식 회장님께서 1년 365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운동을 하시면서 아침운동이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늘 하셔서 저도 몇 년전부터 회장님을 모시고 아침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과 함께 5시 50분 정도 회사 인근 광고 호수공원에 모여 1시간 이상 공원을 돌아 아침식사 장소까지 속보로 걷고, 식사 후 다시 20분 정도를 걸은 후 회사에 출근합니다.

회장님과의 이른 아침 운동을 끝내고 8시경 회사에 복귀하여 이후 약 30분 동안은 직원들과 스트레칭 체조나 요가, 국민체조 등을 실시하고 08:30에 업무를 위해 자리에 착석을 하게 됩니다. 이는 평소 무리한 일정이나 업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잘 견뎌 내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후 저의 일정은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서류를 작성해서 점검해 보거나, 직원들이 결재과정을 거쳐 올라오는 일상적인 품의서 검토,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회의, 외부손님과의 업무상담 등 아마도 점심시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검토, 결재, 회의, 상담 등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업무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가 되면 개인적인 일이나 생각이 많이 필요한 사항과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을 좀 더 보거나 공부를 하다가 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토요일은 창고 공사현장이나 피씨공장을 방문하는 회장님을 수행하면서 지시사항이나 현장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사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며 자신 삶의 가치를 높이자

일요일에는 회장님을 포함한 지인들과 같이 광고호수공원에서 평소 걷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운동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회장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일반 직원들 보다 많은 편입니다.

한주식회장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지산그룹에 몸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한주식 회장님과는 2011년도에 처음으로 업무적인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을 만난 이후로 수년간 남들과 다른 아이템으로 수직계열화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을 성장시키시는 면을 보아 왔고, 2015년 은행퇴직 후 같이 일할 기회를 주셔서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업무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가족들 보다 회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상황이지만 집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추억들이 쌓여 오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업무적으로는 밀어붙이는 힘이 불도저 이상이고 직원들을 이끄실 때는 강한 소신으로 이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독재라는 표현도 하시지만, 돈 많은 사람들 특유의 권위적이거나 사람을 차별하는 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소탈하고 특별한 분이십니다. 또 사업규모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그 이윤을 어렵고 힘든 불우한 이웃에게 환원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저로서는 배우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구상이 있나요?

저는 현재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회장님을 옆에서 모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운동을 권유하고 있기에,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를 열심히 따라서 하고 있



습니다. 이로써 자동적으로 건강과 연결되고,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서 좋습니다. 아침운동과 주말운동 등 늘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일상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충족된 상황이라고 할까요?

또,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직원들과의 직장생활도 즐겁고 좋습니다. 실적 위주의 문화보다는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늘 의견을 묻고 들어주시는 회장님과, 알아서 척척 일을 수행하는 여타 임원과 직원들이 있어서 즐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이 원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참으로 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장님의 의지를 받은 직장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최고의 '다니고 싶은 직장'을 만들자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최고의 직장은 최고의 기업이 되었을 때 가능하고, 그런 가운데 사원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회장님의 뜻이 정확히 반영된다면 참다운 최고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 철학이 있다면요?

특별하게 생각해 왔던 개인의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을 만나고부터 뭔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선배가 살아가는 옳은 길을 봤으니, 저도 그 길을 따라 걷고 싶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제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게 제 좌우명이자 철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 회장님이 제 삶의 방향까지 바꿔 버렸네요.(웃음)

직원들에게 바라는 바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장님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할 사항은 없지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아침조회 시간에 회장님이 건의사항 여부를 물어보실 때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진심으로 건의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많이 나서지 않는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간중간 막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회장님을 포함한 저나 직속상관에게 스펀 없이 협의해 보고 일을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사전보고 없이 완성된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애초에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처음부터 전부 뜯어 고쳐야 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천창고



A-1동의 이천창고와 A-2동의 일죽창고로 구분되는 일죽물류센터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인터체인지와 일죽 인터체인지에서 각각 6km와 7km 거리에 있는 안성시 일죽면에 소재하고 있다.

연면적 3만여평 규모의 냉장, 냉동 창고로서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5개층으로 구성되는 일죽물류센터는 지상은 물론 지하층까지 전층이 도로 램프를 이용해 차량이 직접 접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화물의 신품 내리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www.k2k2.co.kr

일죽창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남사물류터미널은 32,200평 대지에 연면적 77,000평 규모로 축구장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대단위 냉장, 냉동 물류창고다.

지하 2개층과 지상 3개층으로 구성된 남사물류터미널은 지상층은 물론 지하 2개층까지 화물차량이 직접 접안할 수 있는 구조로 화물을 싣고 내림에 있어서 최적의 구조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냉동, 냉장, 상온, 급냉 등 122개의 화물실과 15,000평 규모의 신선작업장을 갖추고 있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 규모와 국내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저온창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사물류터미널은 서울 강남권과 불과 40여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용인,신갈,동탄 인터체인지에서 10여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 남동부 일대에 원활한 수송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겠다.



남사 물류터미널



한편,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을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에는 국내 굴지의 물류회사들이 입주해 있다. 수탁보다는 임대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전체 터미널 직원 2천여명 중에 우리 지산그룹이 직접 고용하는 임직원은 권봉석 상무 외 40여명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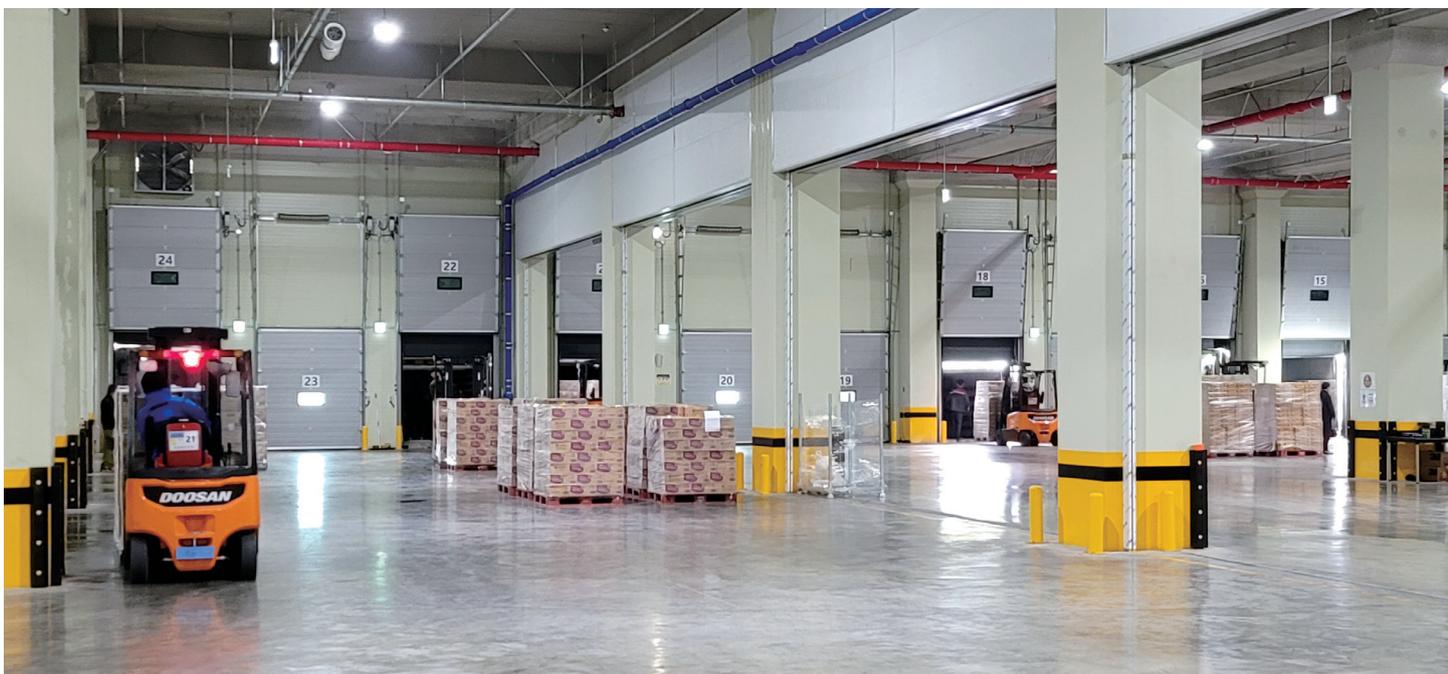
그러나 이 40여명의 직원 하나 하나가 없으면 거대한 남사물류터미널은 절대 원활히 돌아갈 수 없다.

가장 중요하게는 냉장과 냉동 시설의 설치와 수리 및 운영과 건물의 내,외부의 모든 시설과 전산장비, 기계장치 등의 유지와 수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수의 적은 정예요원으로 거대한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배경은 남사물류터미널 만이 갖는 독특한 첨단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화물차 254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게끔 전 층에 걸쳐 입체 램프시스템을 갖췄으며, 전 시설 전동화, 자동화, 전산화 시스템을 갖춰 최적의 물류환경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사물류터미널만의 특화된 고객서비스가 있다. 물류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기사에 대한 처우가 그것이다. 남사물류에는 화물기사들이 편히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이곳에서 바쁜 일정속에서 끼니를 거르기 쉬운 화물기사들이 무료식사는 물론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각종 빵류와 음료 및 간식이 마련되어 있다. 겨울철에 호빵과 군고구마,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등 계절마다 특화된 간식류 역시 화물기사들이 이곳을 명물로 인식하게 하는 장점이 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도 남사물류터미널은 한점의 오차없이, 한치의 실수없이 대한민국 물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뜻한 온정까지 더하여 '사람'이 있는 물류센터가 되고 있다.

www.namsa.kr



안성창고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산22-4 외 소재





12만평 규모, 국내 최대 상온창고 높은 층고와 넓은 기둥간격으로 물류적재 최적화 이뤄

주식회사 지산산업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지산개발이 시공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물류창고가 지어지고 있다.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산 22-4 일원의 총 11만여 평 대지에 연면적 12만평, 지하1층 지상3층 의 규모로 건설되는 안성물류창고는 사업비만 약3천여억원에 달한다.

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3년 6월경 준공하는 6만평의 A동은 그 거대한 위용을 이미 드러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말에 착공한 B동 역시 6만여평 규모의 거대한 몸집을 자랑할 것이다.

보통 이정도 규모의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짧게는 2년여, 길게는 3~4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안성창고 A동의 경우 만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6만평의 창고를 짓는데, 불과 8천7백여 시간만이 소요된 것이다. 이는 6시간 20여분 마다 한 평씩 지었다는 계산이 나오며 아마도 최단기간 공사 중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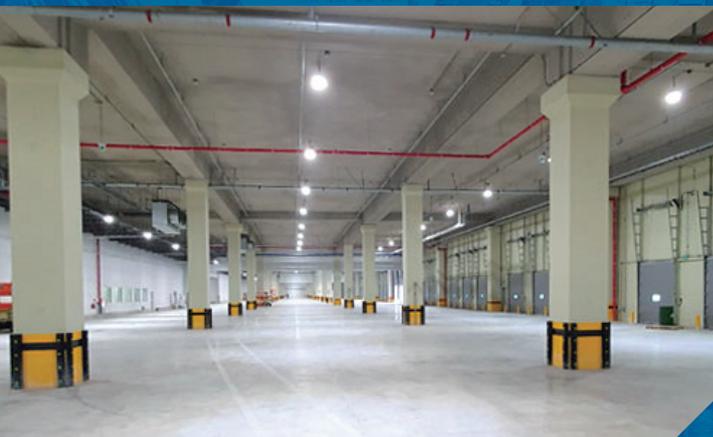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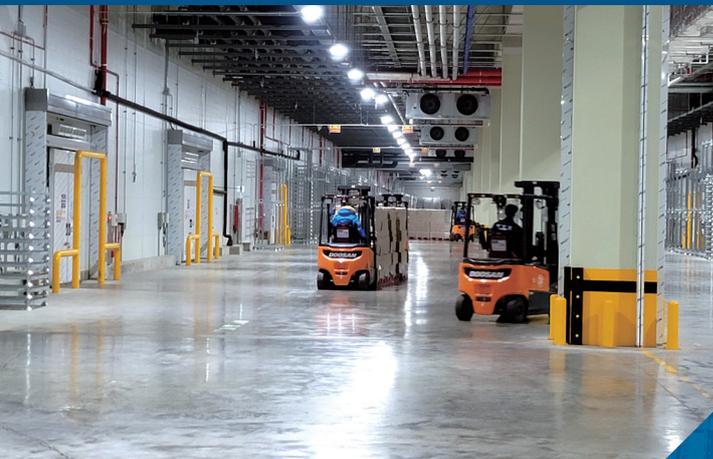
그렇다고 우리가 창고를 부설시공을 했다거나, 일정을 단축하느라 안전상의 무리를 감내한 결과는 아니다. 공사기간 단축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지산그룹이 창고를 짓는데 최적화된 '수직계열화'를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설계와 토목, 건축 및 자재(조립식 콘크리트)를 모두 구성하고 있는 계열사가 총 동원되어 이룬 성과이기 때문이다.

설계에 의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중 예기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설계변경을 요구했을 때, 보통의 경우 현장의견 수집과 설계사무소에 전달, 회의, 설계변경, 승인 등 모든 과정이 별개의 회사에서 이루어지며 전달과정에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주의 기간을 허비하게 된다. 또한 PC도면부터 제작에 이어 납품까지 이 역시 중지없이 진행되니, 자재가 없어서 허비하는 기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안성창고는 수직계열화의 장점을 백분 활용하여 아무런 하자 없이 공사기간의 단축을 이룬 것이다.

이처럼 지산그룹 전직원의 땀과 노력을 가득 머금은채 준공되는 우리의 안성창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만나 대한민국의 물류혁신의 기틀이 되고,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원해 본다. ■

지산그룹 물류창고가 자랑하는 특징과 장점



- 01 ▶ 다양한 리프트, 수직 반송기 등 보다 안정적이고, 많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최신장치를 다양하게 구비.
- 02 ▶ 인위적 램프설치 없이 경사진 본래지형을 활용한 100% 도크 직접 접근 구조.
- 03 ▶ 국내 최대 규모의 냉동, 냉장, 상온 창고 구비. (임대업체의 탄력적인 공간 이용 가능)
- 04 ▶ 높은 층고와 넓은 기둥 간격으로 운영과 적재의 효율성 극대화 구조. (1,000평에 육박하는 chamber의 크기, 16.5m의 기둥 간격, 높은 층고 등은 단위면적당 적재량이 타사와 비교가 불가)
- 05 ▶ 창고 임대회사인 지산그룹이 설계부터 시공, 건축자재, 운영 등 모든 시설과 인원,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수직계열화 시스템을 구축. 이로 인해 창고의 구조와 시설 등에서 고객의 요구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응.
- 06 ▶ 실질적인 운영 경험이나 계획 없이 오로지 단기적인 매각만을 목적으로 계획된 단순한 투자 목적의 창고가 아닌, 임대회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 지은 창고로서, 물류전문회사의 각종 운영, 건축 노하우가 접목된 창고.
- 07 ▶ 한 층의 면적이 1만5천평에 이룸에 따라 대규모 화물 보관이 필요한 업체가 여러 층에 나눠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08 ▶ 지산그룹 전체의 창고가 수도권 일대에 위치. (최적의 물류교통환경 제공)

지산그룹 물류창고의 영업활동



지산그룹의 물류창고는 수도권 물류시장에서 규모나 내부시스템, 장비, 시설 등의 모든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보편화 되어 있는 도크의 직접 접안 시스템은 지산그룹이 최초로 물류센터에 적용하였고,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로 인해 보관과 반출에 있어서 최적의 물류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이에 더 나가 지산그룹은 경사면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살려 물류센터를 건축하고 인위적인 램프 대신 지형 그대로의 도로로써 도크에 접안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창고 구조를 만듦으로써 물류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러한 선진적, 선도적 구조와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한 지산그룹의 물류센터는 별다른 광고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임대와 수탁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산그룹의 창고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부서는 우리 창고의 특징점을 고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장점과 특징을 고객사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납득시키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주는 고객이 제품의 장점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애써 제품을 만든 지산그룹 전직원의 노력이 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산그룹 수직계열화의 훌륭한 성과물이며, 우수한 인력과 자원의 결정체인 지산그룹의 물류창고에 화룡점정을 찍는다는 자세로 이들 마케팅부서는 오늘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지산그룹 물류창고만의 특별 서비스

현재 가동중인 남사물류터미널, 일죽냉장, 이천창고, 대신창고, 송악창고 등 지산그룹이 운영하는 창고들의 특징이 있다.

창고를 방문하는 트럭기사들에 대한 처우가 그것이다.

물론 보통의 창고주들은 트럭기사 보다는 화주사를 중요하게 취급한다. 창고를 임대하거나, 이용하는 결정권을 화주사가 쥐고 있는 것이지, 트럭기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산그룹의 대외 정책은 다른 창고들과는 확연히 틀리다고 자신할 수 있다. 창고를 최신, 최고, 최대를 유지하면 화주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산그룹의 영업활동은 극히 기본적인 수준에 멈춰있다. 국내 최대의 시설과 면적을 자랑하는 지산그룹의 창고이기에 굳이 영업활동을 왕성히 하지 않더라도 고객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룹을 통틀어 영업사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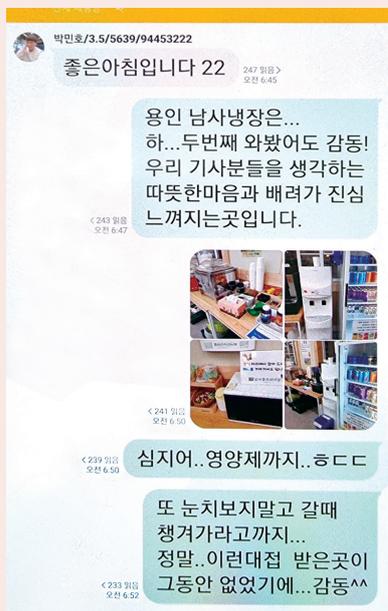
총 3명,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으니, 전적으로 영업 활동만을 하는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영업을 위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 포털 사이트의 기본적인 키워드 광고 외의 광고는 전혀 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물류신문의 정기 광고를 할법도 하지만, 지산그룹에게 있어서는 관심 외의 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지산그룹은 화물을 실어나르는 트럭기사에 대한 처우는 이상하리만치 신경을 쓰고 있다.

지산그룹이 운영하는 모든 창고에 출입하는 트럭기사에게는 몇가지 특전이 있다.



1. 구내식당이 운영중일 때는 무료로 식사를 이용할 수 있다.
2. 휴게실에 비치된 각종 빵과 음료수를 현장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나중을 위해 챙겨가도 무방하다.
3. 군고구마, 호빵, 아이스크림 등 계절별로 기후에 맞는 간식 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시간에 쫓겨 장기간의 운전을 해야하는 트럭기사들의 업무 특성상, 끼니를 거르거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는 문제에 대한 자산그룹 한주식 회장의 특별한 배려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주식 회장은 평소에도 돈이나 사업, 그리고 업무 보다 건강을 강조하는 분이다. 건강을 해치고 돈과 성공을 이룬들 모두 소용없는 것이며,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주식 회장은 우리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차원에서 물류창고의 트럭기사들의 식사 역시 챙기는 것이다. 그들 역시 자산그룹의 가족 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자산그룹 처우에 대한 입소문이 자산그룹이 운영하는 창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이 도움 된다는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트럭기사들 사이에선 이미 자산그룹의 물류창고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다. 자신들의 카톡방에 자산그룹의 트럭기사에 대한 서비스 혜택에 대한 글이 자주 올라오기 때문이다. 트럭기사들에 대한 대우가 극진하고 제공되는 혜택이 많다는 소문에 의해 자주 다니고 싶은 물류센터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그룹은 힘있는 화주사에는 제공하는 상품의 질적 차별화로 대응하고, 힘들어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진심 어린 정성으로 대함으로써 물류업계의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PC공장 소개

일 7백m³ 생산, 국내 최대 PC생산공장 최고의 복지혜택과 임금구조로 근로의욕 고취, 생산목표 초과달성하기 일쑤

일평균 생산규모 700루베(700m³)의 지산피씨공장은 단일공장 생산규모로 보면 국내 최대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연간 160,000루베를 생산하여 이 역시 국내 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2019년 설립되어 갓 3년이 지난 신생 공장으로서 단기간에 업계 4위를 차지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지산피씨는 지산그룹의 자회사인 (주)지산개발이 진천군에 세운 피씨(Precast Concrete) 생산공장이다. 역시 진천군에 위치하며 2017년에 설립된 진천피씨공장과 함께 지산그룹의 건설 부재를 생산하는 공장인 것이다.

지산피씨는 규모면에서 당연히 국내 최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특별한 점은 규모만이 아니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PC제조 또한 가장 빠르고 가장 튼튼하며 가장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PC공장은 고정된 거푸집에서 작업공정만 바뀌가며 생산을 함으로써 생산효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산피씨는 자동차 생산라인처럼 거푸집이 공정마다 이동을 하면서 제작을 하게 되므로, 그만큼 생산성이 높고, 작업 안전도 면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고 있다. 또한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제작을 하게 되어 날씨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생실이 지하에 위치하여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품질이 우수한 PC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최고의 우수한 시설에는 국내 최고의 우수한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박용범 이사(공장장) 이하 60여명의 관리 인력과 300여명의 생산인력으로 운영되는 피씨공장은 그 어느 곳의 피씨생산공장 보다 효율적이고 품질높은 피씨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복지와 노동 댓가가 있어야 한다. 이런면에서 지산피씨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환경과 복지, 임금의 규모 또한 타 피씨공장을 압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지산그룹의 피씨공장은 회사가 요구하는 1일 생산량을 120~130% 초과달성 하기 일쑤이며, 주문량만 주어진다면 어떻게서든 생산해 내고 말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

www.jisanpc.com





도시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기업으로서 업계에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산개발
김주찬 대표

지난 3월 10일 본사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지산개발의
김주찬 대표를 만나
그의 업무활동과 개인사를 물어봤다.

대표님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도로, 녹지, 사면 등을 계획하여 도면화
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토목업무와, 이
를 바탕으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
는 도시계획업무, 그리고 토목의 실행
을 위해 필요한 자재 등을 계획하고 수
급하는 토목공무, 또한 건축설계를 담
당하는 건축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
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형질변경과 계획된 토지
의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위해
관공서의 책임자들을 상대하는 대관업
무와, 우리 지산그룹의 대외적 이미지
고양을 위해, 또한 한주식 회장님의 개
인적인 의지와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회사가 진출해 있는 지역과 사회에
대한 사회사업을 실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과 기부 등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진행하
고 있는 대민 봉사활동은 우리그룹이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대외사업으
로 한주식 회장님이 회사의 이윤을 이
웃과 사회에 환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외활동은?

우리회사가 진출해 있는 용인, 안성, 음
성, 오산, 이천 등 각 지역에서 회사와
지역사회가 적절히 융합하여 어울릴
수 있도록, 민원을 살피고 봉사를 실행
하며,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의 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시에서
는 체육회의 부회장직을 맡아서 안성
시의 민간 체육발전을 위해 우리그룹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불우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
김장을 담궈야 하는 초겨울과, 된장을
담궈야 하는 초봄에는 이틀에 한 번꼴
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눈코 뜰새 없
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허리를 구부려 몸이 혹사당하는 계절
이기도 합니다.(웃음)

지산그룹과의 인연은?

2010년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했습니
다. 처음 지산엔지니어링 입사당시에는
형태는 개인회사였고, 인원수도 적어서
비교적 작은 회사였습니다만, 불과 2
년여 만에 직원 수도 70여명으로 갑자
기 늘고 여러 계열사들이 생기면서 폭
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간에 안좋은
사고로 인해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이죠.

마침 제가 또 안성토박이인 관계로 안
성쪽 일에 있어서 알음알음으로 해결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김과장,
오늘 나가서 (허가 등)받지 못하면 들어
오지 마!” 라는 회장님의 농담조의 말
씀이 머릿속에 박힐정도로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후 매사 일마다 추진이 안되
면 짐싸겠다는 각오가 생겼다고나 할
까요?(웃음)

그러다 2016년 남사물류터미널 준공
당시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누군가
책임을 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
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회장님께 보고 없이 경찰서에 갔고, 이 사실이 경찰쪽에 의해 회장님 귀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회장님이 저를 신뢰하는 계기가 된 모양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는 모습이 기록해 보였나 보죠. 그러다 보니 진급도 하고, 이로 인해 실적도 많이 쌓게 되었다고 봅니다. 고은리 창고나, 남사, 일죽 등 그때 다 준공을 했었거든요.

안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많은데..

아무래도 제 고향이 안성이고, 거기서 나고 자라다 보니,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안성시에서 단체의 장도 되고, 고위직 임원이 되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안성시에서 되는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또, 회장님의 방침도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으로 '박수받는 곳에 투자하라'고 하시니 환영받는 곳에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손가락질 받는 곳에서 괜히 욕먹어 가면서 내돈 쓰며 투자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그룹의 사업지역에 안성지역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개인 일상과 향후 계획은?

입사이후 2013년까지 3년간 안성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지산그룹에 뼈를 묻으려 13년에 용인으로 이사왔습니다. 회사에서 5분거리로 말이죠. 아무래도 집이 가깝다보니 주말에도 출근해서 모형

도 만들고, 구상도 하고 정말로 즐겁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적된 연차일수가 1백일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몰아서 쓸 날이 있겠죠.(웃음)

PC제조공장을 업계 3위권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또 인천이나 오산 그리고 이천 쪽에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완성짓는 것 하고요. 일단 이천쪽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마무리 해서 우리회사가 몰류뿐 아니라 도시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기업으로서 업계에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상사의 일을 뺏아서(?) 하는 하급자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일을 뺏긴 상사는 또 그 윗 상사의 일을 빼앗겼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사는 세부적인 일에서 벗어나 부서의 일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니까요.

아울러 우리회사가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 등 하는 것들에 비해 대외적 평판은 아직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성장과 별도로 이러한 직원복지 등에도 꾸준한 발전을 이워서 구직플랫폼 등의 대외적 평판을 높여서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직장,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은 직장을 다같이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산 사용 설명서



1/ 근무생활

• 출근

오전 8시 30분 출근이 원칙이나 7시 20분까지 출근하여 본사와 센터, 공장 등에 마련된 운동실에서 1시간 운동을 하는 것은 회사의 권장사항입니다.

단, 운동을 했을 경우 1일 1만원의 운동비(주 2회 요가운동때는 2만원)와 단백질 음료, 아침 간식을 제공합니다.

• 운동

매주 목요일 오전 7시까지 광고호수에 집결, 약 1시간 가량 걷기 운동을 합니다.(강제사항 아님, 운동비 2만원) 운동후 인근의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회사로 복귀후 본사 건물 8층에 위치한 사우나에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복귀시간은 오전 8시 40분입니다.

(혹한(-5도 이하)에 광고운동은 보류됩니다.)

• 영양제 복용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복합비타민, 비타민C, 오메가3 등의 영양제는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입니다.

• 식사

점심식사는 당연 제공되며, 한도액은 기본 10,000원 이되, 주변물가에 연동됩니다.

(23년 5월 현재 11,000원)

아침과 저녁식사는 근무시간에 따라 제공됩니다.

• 보고 및 결재

본인 업무의 단계마다 회장님 카톡으로 직접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재서류는 부서장의 검토를 받은 후 회장님께 직접 결재를 받습니다.

• 사내 근무복장은 자유입니다. 계절별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도 허용됩니다.

• 전기안전

퇴근시 개인책상의 멀티탭의 전원버튼을 반드시 꺼야 하며, 자신주변과 회의실 등 인접한 전기기구에 연결된 전원버튼도 꺼야 합니다.

(전기안전과 관련하여 매일 순번제로 안전담당을 선정하고, 안전담당자는 제일 늦게 퇴근하며, 사무실 전체의 전원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 건강유지

근무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운동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직원 건강을 위해 계절에 따라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의무가동해야 합니다.

• 출장

가야할 이유와 내용, 행선지 등을 사전에 카톡으로 보고한 후 비서실에서 공용차량을 배분받아 사용합니다.

• 퇴근

오후 6시입니다.



2/사원복지

- 월 2회 기본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고기류를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카톡으로 공지하며, 퇴근시 창고에 들러 개인수량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 기본 지급품 외 계절과일, 고구마, 무, 버섯, 고춧가루, 쌀, 와인 등을 수시로 지급합니다.
- 계절별 운동복, 운동화, 운동모 등을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 계절별 근무복을 지급하며, 동계에는 고급 패딩을 지급합니다.
- 마라톤 등 운동대회 참가시 참가비를 지급합니다.
- 매시기 전염병 예방백신을 회사비용으로 접종합니다.
- 코로나시기 진단키트를 상비(본인 희망시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 회사에서 직원이 복용하는 영양제 외에, 가족용 영양제 여러 종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생일과 결혼기념일, 미혼자의 경우 부모님 생신에 기념일 케익을 증정합니다.
-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 2회 요가강습을 진행합니다.
- 매일 아침 단백질, 유산균 음료와 산양유, 구운달걀 등 간식을 지급합니다.
- 전 사원이 본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며, 주차비는 회사가 대납합니다.

- 본사의 경우 직원건강을 위해 엘리베이터 계단 사용하기를 시행합니다. 이때 1회 계단이용시 1천원을 지급하며 6층 비서실 옆 금고에서 자발적으로 인출합니다.(1일 6회한도)
- 그 외 타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화된 복지혜택은 당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구매 보조
자가차량 이용시 차량유지비 20만원,
대중교통 이용시 출·퇴근 교통비 10만원을 보조합니다.

3/기타 의무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기적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이때 후원금액의 50%를 회사가 돌려드립니다.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형태로든 운동을 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금연은 입사조건 중의 하나이며, 근무기간 중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즉시 퇴사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 아침조회에서 회장님께 업무, 복지, 회사생활 등에 대한 건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운동 및 조회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
- 근무시간중 사적용도(유튜브 시청등) 휴대전화 사용자제

한주식 회장님



•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 매 순간 늦은 때란 없다.

늦었다고 한탄한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이른 때.

• 약자의 일탈은 비난의 대상이나, 강자의 일탈에는 이유를 찾게 된다

장례식장에 빨간 운동화를 신은
평범한 사람은 비난 받을 것이나,
명망가라면 '이유가 있겠지'라는
해명을 듣게 된다.

• 뻔맞고 해결될 일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맞는게 낫다

목적에 위한
불가피한 손실이 예상된다면,
일찌감치 치루는게 좋다.

• 걸림돌을 디딤돌로

고난과 역경의 걸림돌을 성공의 디딤돌로.

• 남들 가지 않는 길에 주목하라

때로 더 좋은 길이 보일 것이며,
자신만의 생로를 찾기도 한다.

• 관습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정해진 규칙은 없다.
내게 유리한 것이 규칙이다.

• 사소한 균열을 바로잡는 행위가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변화의 시발점이 어디인지 알려준다.

• 실리란 'UN군 묘지에 보리를 심는 것'

목적이 푸르게 보이는 것이라면,
잔디냐 보리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 짐승은 잘난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만, 사람은 못난 자식에게 더 신경을 쓴다

약육강식(弱肉強食)은
동물에게 해당하는 법.
인간사회에서의 생존방식은
인정(人情)을 기반으로 한다.

• 아홉을 실패해서 하나를 얻는다면 충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과감히 도전하라.

• 남들 다 아는 백 가지 보다, 나만 아는 한 가지가 더 위력적이다

남들 모르는 +α를 개발하라

• 세상이 끊임없이 바뀌듯, 생각과 결정 또한 계속 바뀌어야 한다

변화된 여건에 의해 바뀌는 판단은
변덕이 아니라 진화다

• 네거티브는 규제하는 것 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규제에 실망 말고,
규제 외 사안에 주목하라

• 앞선 한 걸음의 이익보다, 뒤쳐진 한 걸음의 손실이 더욱 크다

조직의 선두에서 앞서가는 한 걸음이
방향성 설정에 큰 도움을 주지만,
뒤쳐지는 한 걸음은
전체 조직의 정체(停滯)를 일으킨다.

• 일의 우선순위는 급하고 중요한 요인에 따라...

1. 급하고 중요한일,
 2.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일,
 3. 급하긴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
 4.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 네 가지로 구분하여 순서를 배정하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해서 안될 것은 실수지만, 절대 해서 안되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반복된 실수를 초래한다.

• 후리소매(厚利小賣)를 추구하라

그만한 가격을 줘서라도
기꺼이 살 물건을 팔아라

• 동일한 현상에도 다른 이면이 있다

맥락을 알아야
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표면적 현상으로
본질을 해석하는 오류는
초보자들이 범하는 실수다.

- **회사의 대결 상대가 근로자라면 마땅히 저야 한다**
회사의 근간이 근로자인데, 근간을 이겨 무슨 보람이 있을까?
- **보고는 완료 전에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완료후 보고는 폐기나 채택 둘 중 하나의 선택지 밖에 없는 통보다.
- **오너는 직원의 꿈과 목표를 이뤄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먼저 직원이 꿈을 꾸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 **선한 행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여 파급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오른손이 한 선한일은 왼손뿐 아니라, 오른발, 왼발까지 알게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 시켜야 한다.
- **목욕탕에 갈 때는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라**
몸의 때를 씻어내고도,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은 목욕을 안 함과 같다.
- **인기와 희소성에 의지한 가치보다 쓰임새에 의한 가치가 오래간다**
거품은 꺼지게 마련이다.
- **전통과 관습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불합리한 전통과 악습을 깨다 보면 새로운 전통과 관습이 만들어진다.
- **사원의 건강은 회사 발전의 토대**
회사가 잘 되려면 사원의 건강부터 챙겨라.
-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자신의 가치는 배로 될 것이다.
- **일의 풀리지 않을 때는 판을 뒤집어보라.**
넓게 보고, 뒤집어 보고, 다르게 보라.
- **국가와 민족을 위한 위대한 길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
위대한 일, 하찮은 일이 따로 없다. 낮은 자리일지라도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허술히 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다.
- **호랑이를 쏘려면 죽일 수 있어야 한다.**
쏜 화살이 호랑이를 죽이지 못할 때의 후과(後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 **가설을 세워라. 과학적, 창의적 사고에 의한 가설은 정답을 향한 무궁무진한 방법을 제공한다.**
사실의 해답을 모른채 세운 가설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오답을 제공할 것이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영뚱함이 세상을 만든다.**
영뚱한 발상이 새로움을 만들고, 새로움은 세상을 바꾼다.
- **가구를 사기 전에 집부터 알아봐야..**
일에는 진행하는 순서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표현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은 반드시 보고로 표현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 **마라톤에서의 승부는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마라톤정신이 아닐까
- **쫓아가 팔지 말고 찾아와서 사게 하라**
하수는 팔려고 노력하고, 고수는 사려고 안달하게 만든다.
- **요행을 위한 시간조차 아껴야 성공에 접근할 수 있다.**
작은 확률의 요행을 바라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 **사업은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닌 돌팔이가 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사고(思考)와 거침없는 실행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토지이용의 작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큰 계획은 하늘이 세우는 것**
자연조건을 면밀히 살피면 장기적인 이용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 **변화는 지속발전의 추진력이다.**
변화없는 기업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속에서 반드시 도태한다.
-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제품은 어딘가 반드시 상품으로 존재한다.**
설마 이런 것 까지.. 생각하지만, 소비자가 원한다면 반드시 어딘가 있기 마련이다.
- **일상문제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
인생은 정해진 답을 제출해야 하는 시험문제가 아니다.
- **나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법이다**
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하게, 사법부는 이들 간에 공정하게.
- **기부는 돈의 가치를 높이는 참된 자본주의자의 행보**
자본(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은 돈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다.

언론보도

2022

신용사회 <small>CEO를 위한 경영 인문서 · Since 1977</small>	2022.01.10	월간신용사회, 한주식 회장 '작은 거인이 일궈낸 '물류왕국' 성공신화' 인터뷰기사 게재
KBS NEWS	2022.04.20	KBS news, 한주식 회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보도
미래한국 <small>시사 전문 주간</small>	2022.07.27	주간 미래한국,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긍정 마인드가 선진기업 비결' 기사 게재
시사 한국인	2022년 봄호	시사 한국인, '자산그룹을 말한다' 기사 게재
대전일보	2022.10.31	대전일보, 자산그룹 자선활동 기사 게재
전국매일신문 <small>전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small>	2022.11.14	전국매일신문, 자산그룹, 여주시 6개 시,군에 김장배추 '통근 기부'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2.12.19	강원도민일보, 도소방본부에 요소수 기탁 보도

2023

경인일보	2023.01.05	경인일보, 한주식 회장 '회사선 1인 기부활동 문화장려, 자녀들에 나눔의 중요성 일깨워' 기사 게재
경인일보	2023.03.03	경인일보, "자산그룹 (주)이천창고, 성실납세 공로 기재부장관 표창 수상" 보도
연합뉴스 <small>YONHAPNEWS AGENCY</small>	2023.05.02	연합뉴스, 한주식 회장 '경기사랑의 열매에 10억원 기부' 보도
동아일보	2023.05.03	동아일보, '자산디딤돌기금' 조성, 10억 기부 보도
월간조선 뉴스룸 <small>Daily</small>	6월호	월간조선, 한주식 회장 인터뷰 '기부는 돈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 기사 게재

기타활동

2022.02.18	안성시 보건소,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자산개발과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09.15	한주식 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초청 '2022년 전국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특강
2022.10.25	김주찬 대표, 가치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초대 이사장 선임

지산그룹 수상내역

2022

01.19	한주식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04.20	한주식 회장, 보건복지부 주최 '제42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
06.29	김주찬 대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행사에서 CEO대상
09.14	김주찬 대표,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제25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09.17	한주식 회장, '대덕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면민으로부터 공로패
09.22	한주식 회장, 다함께 돌봄센터 주최 '아동이 행복한 안성포럼' 감사패
10.06	한주식 회장, 전국지체장애인협회 '제4회 중앙회장배 전국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회' 감사패
10.07	김주찬 대표, 시사투데이 주관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선정

11.25	한주식 회장, 경인일보 주관 '제41회 경인봉사대상' 지역봉사부문 수상
12.05	김주찬 대표, 김경희 이천시장 표창장
12.07	한주식 회장, 용인시 자원봉사 표창장
12.08	김주찬 대표, 음성군 새마을 지도자대회 감사패
12.12	정순재 이사, 용인시기흥노인복지회 주관 '2022년 자원봉사자 & 후원자 감사의 밤' 경기도의회 의장상
12.12	김회주 차장, 상동 행사 유공자 표창
12.12	정종화 이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주최 '경기도지체장애인대회' 경기도지사 표창
12.13	한주식 회장, 용인시청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공자 감사패

2023

02.24	김주찬 대표, 오산시시장 표창
03.03	한주식 회장,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지산그룹(회장 한주식)의 자선활동

2022

- 01.06 안성 광덕 초등학교 고려인 학생 대상 의료비 500만원 지원
- 01.18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천200만원 상당 온수매트 전달
- 01.26 남사읍 홀로 어르신 500만원 상당 떡, 고기 등 설음식 대접

- 02.14 음성군 새마을회 '사랑의 된장 나누기'행사 후원
- 02.24 안성또바기봉사단 '김치 나눔 봉사' 후원
- 02.22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성금 1천380만원 전달

- 04.04 음성군 새마을회 '사랑의 된장 나누기' 2차행사 후원
- 04.22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재단구호 급식차량 기증



- 08.12 진천군에 산불진화용 요소수 2,000ℓ 기증
- 08.20 제8회 용인 백암백중문화제 후원
- 08.25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제12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후원

- 09.07 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 '다들방앗간의 송편만들기 사랑나눔'행사 후원
- 09.17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재단구호 급식차량 기증
- 09.22 한주식 회장, 다함께 돌봄센터 주최 '아동이 행복한 안성포럼' 감사패
- 09.28 여주시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원 기탁

- 10.06 전국지체장애인협회 주최 '제4회 중앙회장배 전국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회' 후원
- 10.06 한주식 회장, 전국지체장애인협회 '제4회 중앙회장배 전국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회' 감사패
- 10.12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제20회 적십자 ESG온라인 자선걷기 캠페인' 1천만원 후원



지산물류그룹 임원진의 부대방문을 환영합니다

2022. 5. 23. (월)



22.05.23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방문 음료 지원

- 11.15 충북 문백면 주민자치회 주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후원
- 11.16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용인지구협의회 주최 '지산그룹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후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주최 '제27회 용인시지체장애인대회' 후원
- 11.17 호법농협 농가주부모임, 자원봉사단 주최 '2022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후원
- 11.18 남사읍 새마을부녀회 주최 '홀로어르신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후원
- 11.28 충북 음성군 울면, 이천시 삼성면에 '지산그룹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나눔' 행사에 쌀 1톤 기증



- 05.04 안성시 주최 어린이날 행사 후원
- 05.13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350만원 기부
- 05.23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방문 음료 지원

06.25 제1회 처인성 문화제 후원

- 07.09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주최 '두리하나 어울림 탁구대회' 후원
- 07.10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안성여자FC가 참여하는 생활축구 친선경기 주최
- 07.23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주최 '용인시장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후원
- 07.26 남사면 독거노인을 위한 삼계탕과 복숭아 350인분 전달



- 10.13 경기도게이트볼협회 주최 '경기도협회장기 남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후원
- 10.31 음성군 새마을회 '사랑의 된장 나누기' 3차행사 후원

- 11.03 경기도게이트볼협회 주최 '제27회 경기도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후원
- 11.03 충북 감곡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최 '사랑의 김장나누기 배추심기' 행사 후원
- 11.07 충북 삼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최 '사랑의 김치 담가주기' 행사 후원
- 11.09 경기 호법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후원
- 11.10 경기 백암면 부녀회 주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후원
- 11.11 안성 대덕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후원
- 안성 대신면 주민위원회,이장협의회 주최 '대신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후원



2023



- 12.08 강원도소방본부에 산불진화용 요소수 25,000ℓ 기증
- 12.21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에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산타잔치' 주최
- 12.23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 불우이웃 겨울나기용 겨울이불 증정

- 02.07 안성시 대덕면 '2023년 새해맞이 웃놀이대회' 후원
- 02.17 음성군 새마을회주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된장나누기' 후원

- 03.03 한주식 회장,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03.10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 긴급구호 성금 기탁식
- 05.02 한주식 회장, 사랑의 열매에 자산디딤돌기금 10억원 기부





지산그룹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하는 자세



사회가 우경화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늘고 있다. 이러한 틈새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 역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특성상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했을 때 취업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에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각종 부당한 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주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지사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불과 30여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진출하여 취업(불법, 합법 포함)하는 한국인이 더욱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은 해외에서의 차별과 멸시를 곳곳이 견디며 외화를 획득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데, 불과 수십년전의 우리의 처지를 잊고,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멸시하며 차별한다면 갑자기 돈을 번 벼락부자가 과거 처지를 잊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천민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산그룹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하는 자세는 타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지산그룹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한국인들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며, 오히려 타지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곤

란한 상황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산그룹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월급과 별도로 기본적인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월급에서 숙소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식이다. 또 힘없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허술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우선 회사가 마련한 기숙사에는 침대 등의 가구와 세탁기 전자렌지, TV 등의 전자제품 등이 완비 되어 가족만 없다면, 완벽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한정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인근 아파트를 임대하여 머물 수 있게 해주며, 이 경우 역시 모든 가구와 시설을 갖춰준다.

이 외에도 이들에게는 삼시 세끼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명절 등 연휴기간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의 처지를 십분 고려해서 이들이 외롭지 않게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들 또한 우리의 생산과 매출을 담당하는 구성원이며 그들로 인해 우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주어진다. 한 주식 회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산그룹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처럼 따뜻하고, 정답게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

한주식 회장님의 에피소드

콜롬버스 달걀과 한주식회장



때는 50여 년 전,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지금의 세종대학교가 남녀공학이 되기 전 수도여자사범대학으로 이름을 떨치던 어느 때, 수도사대를 돌아 화양시장 방면의 모퉁이에 자그마한 건물을 소유한 A씨가 형질변경 전문가 한주식 회장을 찾아왔다.

“회장님! 제가 소유한 건물이 건국대와 수도사대,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을 끼고 있어서, 커피를 팔면 잘 될 것 같은데... 도저히 구청에서 다방(지금의 커피전문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서초동 법원가에서조차 알아주는 부동산 전문가이자, 형질변경 전문가인 한주식 회장은 시답잖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어찌 그리 쉬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까?”
“커피만 팔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대답에 눈이 번득 뜨인 A씨는 황급히 말했다.

“그럼 좋은 방법이 있단 말인가요?
요샌 넘쳐나는 다방 때문에 허가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렇다. 당시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들어선 대한민국의 중심가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다방이 마치 한량들의 퇴폐적인 휴게실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당시의 군사 정권이 강압적인 규제로 일관하고 있었던 때였기에, 다방허가는 완전히 금지상태였던 것이다.

한주식 회장은 별거 아니라는 듯 A씨를 향해 물었다.

“주변의 환경을 보면 대학이 두 개가 있고,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가족 공원이 있는데, 거기다 퇴폐다방을 차릴 건 아니잖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젊은 학생들과 대공원을 이용하는 가족들을 상대로 커피를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당신은 커피를 파는게 아니라, 토스트를 팔면 되는 겁니다. 토스트를 돈 받고 팔되, 커피를 공짜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주식 회장은 말을 이었다.

“구청에 휴게음식점 허가를 신청하면 금방 허가가 나옵니다. 토스트를 팔겠단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말입니다.”

결국 A씨의 고민은 한주식 회장의 ‘한방’ 치료로 깔끔히 해결되었다. 하지만, 이렇듯 간단한 해결방법을 왜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버스가 달걀을 세우는 방법은 한쪽 면을 깨뜨려 세우는 것이었다. 이를 본 주변인이 ‘그걸 누가 못해’라고 항변하자, 콜롬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엉뚱한 방법과 색다른 관점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개척자!’ 라고 말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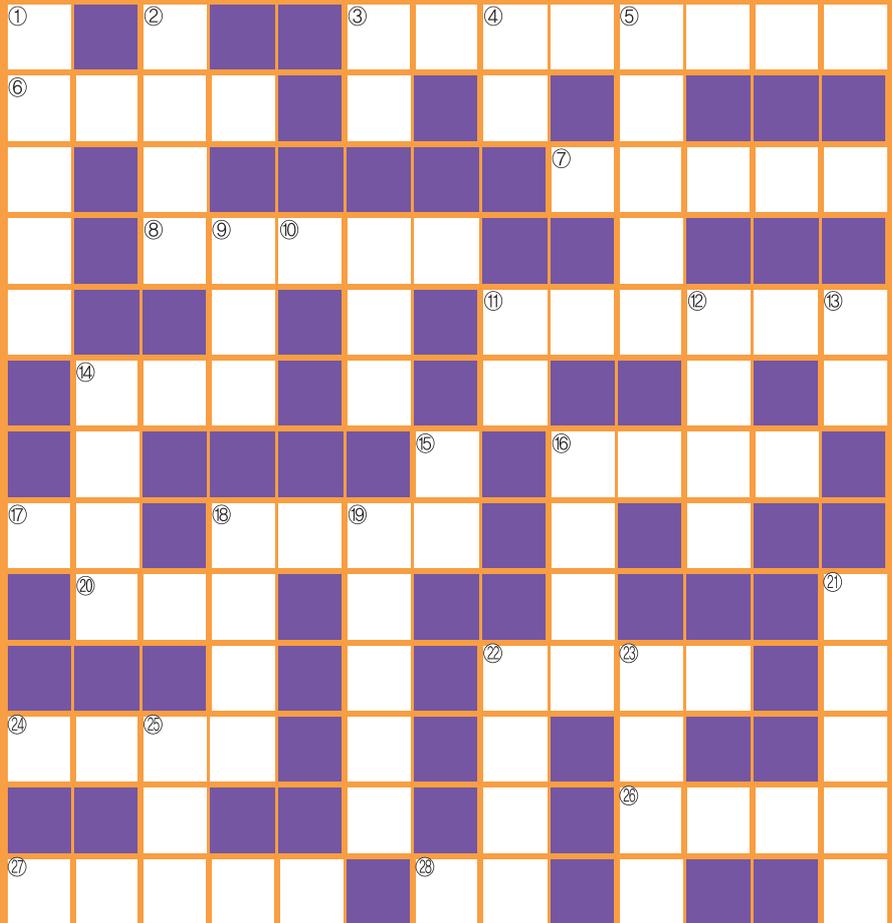
이렇듯 한주식 회장은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관점으로 ‘최초’의 해결방법을 개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제 개척자가 아닐까 한다. ■

회장님 강의와 어록을 읽은 사람은
100% 맞추는

지산인

가로 세로

Quiz



가로열쇠

- ③ 난관을 극복하여 성공의 초석으로 사용하지는 의미로, 지산그룹의 사훈이다.
- ⑥ 직책이나 직업상의 임무를 역할에 따라 나누어 맡음.
- ⑦ 하늘과 맞닿아 있는 선. 지평선.
- ⑧ 컴퓨터를 바탕으로 사무실 업무의 간략화, 효율화, 시스템화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일.
- ⑪ 공장 자동화.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과 조립의 일체를 자동으로 이루는 것. 지산씨는 생산의 전과정이 자동화된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 ⑭ 일정한 용도로 쓰고 남은 나머지, 자로 끊어 파는 피륙의 팔고 남은 조각.
- ⑯ 한주식 회장은 어려서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선고를 받고 이것을 경험했다. 죽음에 대한 경험.
- ⑰ 뜻한 바를 이루어 목적에 다름. 우리는 목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⑱ 생활을 안정화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 ⑳ 용인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행정구역. 본사가 소유한 땅이 소재한 곳으로 향후 공동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 ㉒ 나이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곤란한 지경을 뜻하는 사자성어.
- ㉔ 싸게 많이 파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 지산그룹의 방침에 역행하는 말.
- ㉖ 평화의 추구를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주장이나 사상.
- ㉗ 가수 싸이가 불러 세계적인 히트곡이된 노래. 오빤 ~
- ㉘ 비, 눈, 기온 등의 변화에 따른 대기의 상태를 이르는 말. 본사의 목표일 아침 운동은 이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세로열쇠

- ① 한 제품에 대한 생산부터 판매까지 필요한 회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지산그룹은 물류창고의 개발-설계-건설-자재-운영-판매를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② 물질의 바탕을 이루는 날날의 요소에 대해 좋고 나쁨을 살피거나 조사함. 우리 회사가 와인을 수입하고 통관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③ 소수의 앞선 ○○보다, 전체의 한 ○○을 추구해야 한다.
- ④ 갑자기 세차게 부는 바람. 지산그룹은 입체도로를 통한 전층 차량접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업계에 신선한 ○○을 물고왔다.
- ⑤ 정해진 물건의 값에서 일정한 액수나 비율을 깎음. 찾아가 판매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이에게 판매하는 지산그룹은 이를 적용할 일이 없다.
- ⑨ 안정창고가 지어지고 있는 지역.
- ⑩ 2개 이상의 제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결합하고 제어해서 위상을 갈게 하는 것. 휴대폰○○○, 아이튠즈○○○.
- ⑪ 겨울철 눈 스포츠의 하나.
- ⑫ 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 가짜뉴스를 확인하는 과정.
- ⑬ 기계, 설비, 기구를 장기간에 걸쳐 임대한다는 영어단어
- ⑭ 한주식 회장은 오로지 대학 첫학기 등록금만을 집에서 지원받은 채, 무일푼으로 이를 이뤘다.
- ⑮ 24절기 중 하나.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⑯ 싸움에 임해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의 세속오계 중 하나.
- ⑰ 지산그룹의 판매방침. 기발하고 특별한 것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할 때 가능하다.
- ⑲ 정해진 시간 외에 초과근무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 ㉒ 기존의 권위에 의지한 채 사람을 상대하거나 사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태를 즐기는 사람.
- ㉖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지산그룹의 1공장.
- ㉘ 성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
- ㉘ 스위스의 한 도시 이름. 매년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한 곳.

퀴즈 풀고 선물 받고

| 응모 요령 |

카톡 전체방에 퀴즈 답지를 내려받은 후 공란에 답과 소속 이름을 적은 후 기획부 손영준차장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응답자는 전체방에 점수를 게시하고, 이중 정답을 제출한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합니다.

- ① 지산그룹의 사훈. 역경과 고난의 ○○○을, 밟아 딛고 일어설 ○○○로 만들어야 한다.
- ② '~~는 안돼!' 라는 부정적 의미의 ○○○은 '~~를 제외한 모든 것은 돼!' 라는 폭넓은 선택을 뜻하는 긍정의 의미로 알아야 한다.(반댓말 포지티브)
- ③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한겨울에 ○○대신 ○○를 심어 푸른모자를 만듦으로써,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모자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이며, 이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다.
- ④ 적게 팔아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은 상품자체가 희소성이 있거나, 기발한 아이디어의 획기적인 상품일 때 가능하다.
- ⑤ 모두의 ○○을 염려하는 한주식 회장은 '회사가 망할지라도 내 하나의 바람은 의 직원의 ○○이다'고 말씀하셨다.
- ⑥ 지산그룹은 토지매입→형질변경→개발허가→토목,건축설계→피씨생산→건물건축→운영 및 판매 등 건축물을 짓는 전과정을 ○○○○를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다.
- ⑦ 누가 해도 할 일이면 ○○하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면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더욱 ○○하자.
- ⑧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시세를 의미하는 ○○가격, 원가를 고려한 ○○가격, 기대가치를 반영한 ○○가격 등 세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 ⑨ ○○○○는 진정한 권위가 없는 소인배들이 복장이나 규정 등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인정받고자 하는 그릇된 의식이다.
- ⑩ 토지의 쓰임새를 주변환경과 법률적 검토에 의해 바꾸는 것을 ○○○○이라고 한다.
- ⑪ 한주식 회장은 1995년,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한 역대 최악의 건물붕괴 사고인 ○○○○붕괴의 원인을 골짜기를 매립한 땅에 지어진 상태에서 인근의 온천수 개발로 인해 지표수를 빼앗겨 지반이 붕괴되었다고 피력했다.
- ⑫ 요즘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하다. 그러나 민원부서가 아닌 인허가 부서는 아직도 민원인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과거 관치주의 사회에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은 관이라는 사고방식의 ○○○○는 시대가 바뀔에 따라 당연히 없어져야 할 사자성어다.
- ⑬ 세 시간 일찍 일어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퇴근 이후 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과 ○의 원칙만 잘 준수한다면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⑭ 목욕탕에 가서 더러움을 씻어 내기 위해선 사전에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 한다. 몸을 깨끗이 씻고도 기존의 ○○○○을 그대로 입는다면, 몸을 씻는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 ⑮ 기부와 봉사 등 나눔의 선한 행위는 다소 삭스럽더라도 떠들고 알려서 ○○○○를 최대한 발생시켜서 영향의 확산을 일으켜야 한다.
- ⑯ 한주식 회장님은 스스로 ○○○○를 자칭한다. 이는 어떠한 학위나 자격도 없이 스스로의 직관과 유추만으로 상상의 문제해결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루기 때문이며, 전문가들조차 놀랄만한 성공률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 ⑰ 누군가 뒤쳐진 한 ○○은 전체 조직의 정체를 일으킨다. 앞선 한 ○○을 장려하는 것 보다, 뒤쳐진 한 ○○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 ⑱ 짐승은 잘난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만, 사람은 ○○○○을 더 신경쓴다. 회사에서도 부족한 직원과 부서의 모자란 부분을 다른 곳에서 채움으로써 생산성을 맞추는 이유다.
- ⑲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고 편협한 사실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 ○○한 생각과 말,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 ⑳ 이탈리아가 크지 않은 자신의 작은 오류나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 후속공사에서 큰 오류나 막대한 일정차질이 빚어지는 현상을 ○○○○라고 한다.



운동과 건강, 지산그룹의 지상명령

지산그룹의 전직원에게 있어서 운동의 수행은 지상명령(至上命令)과 다르지 않다. 반드시 수행하여 따라야 하는 지상과제인 것이다.

지산그룹은 새해 첫날의 첫 시작을 운동으로부터 시작한다. 본사와 각 센터, 공장 등 자신이 위치한 지역에서 새벽부터 걷기 운동으로 시작하여 다함께 아침식사를 한 후, 시무식을 갖는다. 즉, 한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의 시작 또한 운동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운동은 매일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출근하여 다같이 실내 체육관에서, 헬스기구를 이용하거나 탁구 등의 운동을 수행하고, 다 같이 체조로써 마무리를 한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초빙된 요가강사의 지도아래 요가수업을 받는다. 이때 1회 운동에 1만원씩, 요가수업이 있는 날은 2만원씩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된다.

또한 출근과 퇴근 점심식사를 위한 외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면 편도 1회당 1,000원씩 4,000원을 회사로부터 받게 되며, 출장 등 외부불일이 있으면 하루 수령 금액은 6,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렇듯, 운동을 하면서 받게 되는 운동비는 월 40만원이다. 연간 480만원이 연봉과 별도로 순수히 운동을 하면 받게 되는 금액이다. 더구나 이 금액은 회사가 세금의 일체를 부담하고 직원에게 주는 세후금액이기에 세전으로 계산하면 아마도 600만원 정도 연봉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외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영양제와 단백질 음료 및 운동후 간식 등을 제공한다. 이때 비타민과 오메가 3 등 4종의 영양제는 때맞춰 가족들 뭉까지 지급되니, 집에서 따로 영양제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지산그룹이 직원의 건강을 위한 운동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한주식 회장의 특별한 방침 때문이다.

“일 못하는 직원은 용서해도, 운동 안하는 직원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한주식 회장이 평소 즐겨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 정도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재물이 아무리 많고, 오래산다고 할 지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 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며 건강할 때 운동하여 그 건강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강조하신다. ■

지산개발 PC사업부

일 7백^m³ 생산,
국내 최대 PC생산공장
국내유일 순환식 생산라인 도입,
전자동 스마트시스템 도입
지하 양생실 운영, 양생품질 향상

충북 진천군 문백면 파재로 77 Tel. 043-532-0300

문의 상무 윤민태 010-8416-5609 / 과장 이현준 010-6800-0216



내일의 꿈을 그려주는
지산엔지니어링



 **地山 그룹**

대표전화 : 031-280-6091

지산 | 지산개발 | 지산산업 | 지산엔지니어링 |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남사물류터미널 | 남이천창고 | 용인물류터미널 | 이천창고 | 일죽창고
지산피씨 | 진천피씨 | 송악창고



www.jisaneng.com